

| 국어는 이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6월 모의고사 제4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제4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 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⑤	2	18	⑤	3	35	②	2	35	⑤	2
2	②	3	19	④	3	36	③	3	36	②	3
3	①	2	20	②	2	37	④	2	37	①	2
4	⑤	2	21	③	2	38	⑤	2	38	①	2
5	②	2	22	③	2	39	①	2	39	③	2
6	④	2	23	④	3	40	③	2	40	②	2
7	①	2	24	①	2	41	⑤	2	41	②	2
8	②	2	25	④	2	42	③	2	42	①	2
9	④	3	26	③	2	43	⑤	3	43	②	2
10	⑤	2	27	③	2	44	①	2	44	③	2
11	⑤	2	28	③	2	45	②	2	45	③	3
12	④	2	29	⑤	3						
13	④	2	30	①	2						
14	⑤	3	31	③	2						
15	②	2	32	②	2						
16	①	2	33	④	2						
17	③	2	34	③	3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 제4차 예비평가 해설

• 공통과목 •

[1 ~ 4] 현대시

→ 연계 지문 : 김관식, 「거산호 2」(수능특강 288쪽)

→ 작가 연계 : 정지용, 「장수산 1」(수능특강 82쪽)

1.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녀’라는 표현은 장수산의 겨울밤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겨울밤의 장수산 속에서 느끼는 상념을 그러한 감각적 인상과 결부하여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나)의 ‘너그러워 수하는 데다가/보옥을 갖고도 자랑 앓는 겸허한 산’은 자연물인 ‘산’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한 것으로, 그러한 ‘산’을 통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가)에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가), (나) 모두에서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사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녀’는 보름달이 밝게 비추어 하얗게 빛나는 눈 덮인 골짜기의 풍경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화자는 뜨지 않는 달을 기다리며 걷는 것이 아니라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이에 대해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달이 보름을 기다려 이처럼 희게 뜬 것은 나로 하여금 한밤중에 이 골을 걷게 하기 위한인가?’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와 같이 진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이 골’은, <보기>와 결부하면 탈속적 분위기를 지닌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화자가 ‘한밤 이 골’을 걸으며 질문을 던지는 행위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기 위한 시인의 고뇌와 모색을 담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밤 이 골’이 좌절감과 고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일제 강점하의 암울한 현실을 나타낸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치 않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아람도리 큰 솔이 베혀짐 즉도 하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가 ‘찌르렁’ 돌아옴 즉도 하이’라며 예스러운 어투로 상상을 전개하고 있다. 고요한 산속에 있는 화자가 이처럼 청각적 심상을 환기하며 그러한 고요가 깨어지는 상상을 전개하는 것에는, <보기>를 참고하면 화자의 내면적인 긴장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웃절 중’은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초연한 정신적 경지에 도달한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웃절 중’을 화자는 그다음 시구에서 ‘조찰히 늙은 사나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좇는다?’(‘내가 이렇게 걷는 것은 조찰히 늙은 사나이가 남긴 내음새를 좇는 일인 것인가?’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와 같이 진술한 것에서는, 그러한 초연한 경지로부터 현실로 인한 좌절감의 극복 방향을 모색하는 시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④ ‘바람도 일지 앓는 고요’는 ‘장수산’의 고요함을 나타낸 것으로서, <보기>에서 설명한 탈속적 풍경의 분위기가 시속에 구현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시름’이

‘심히 흔들리’고 있다고 한 것에서, 탈속적 분위기와 대비되는 시인의 고뇌하는 내면이 부각된다. ⑤ 문맥상 ‘슬픔도 꿈도 없이’는 ‘차고 울연히’와 함께 ‘견디란다’를 수식한다. <보기>와 결부하면 이는, 감상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슬픔도 꿈도 없이’) 일제 강점하의 현실을 냉철하고 굳건하게(‘차고 울연히’) 직시하고 인내하려는(‘견디란다’) 시인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출제의도] 시의 맥락과 관련하여 시구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의 ‘겨울’은 추위를, ‘한밤내’는 어둠이 지속되는 상황을 환기하는 것으로, 화자는 ①을 통해 ‘차고 울연히’ 견뎌야 하는 부정적인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며 시상을 종결짓는다. ②은 화자가 ‘북창을 열어, /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앓은’ 시간으로, 그러한 화자의 행위에 담긴 의미에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며 시상을 연다.

[오답풀이] ② ①은 화자가 탈속적인 공간에서 고뇌를 느끼는 시간이지 바깥 세계와 교섭하는 시간이 아니다. ②은 화자가 세속적 현실과의 의도적인 단절을 택해(‘장거릴 등지고’) 자연을 지향하는(‘산을 향하여 앓은’) 시간이지 현실과의 단절로 인해 소외감을 절감하는 시간이 아니다. ③ ①의 줄표는 흐르는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밤이 지속되는 상황을 환기하는 것이다. ②의 쉼표는 정체된 자신에 대한 후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구의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오늘’을 강조한다.

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탐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라는 표현은, 자연 속에서도 자연을 지향하는 태도를 통해 승고한 대상인 자연과의 합일을 부단히 추구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산’이라는 대상의 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찾을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의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이라고 한 것은 ‘산’의 속성이 오랜 시간에 걸쳐 변치 않고 유지되어 왔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선생님의 안내에서 언급된, 송고미의 대상은 시간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④ ㉠의 ‘아아라히 뻗쳐 있어’라는 표현에서 장엄한 ‘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며, 이 ‘산’이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 사이에 ‘다리 놓는’다고 한 것에서 ‘산’이 삶과 죽음을 포용하는 승고한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 ~ 10] 과학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86쪽

5. [출제의도] 지문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아미노산 사슬이 접혀서 단백질이 된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을 뿐, 아미노산 사슬이 세포 내의 어느 기관에서 생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참고로 아미노산 사슬은 리보솜이라는 세포 내 소기관에서 만들어진다.

[오답풀이] ① 지문을 통해 단백질은 아미노산과, 결사슬에 붙어 있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③ 광우병은 뇌에 구멍이 뚫리는

증상이 발현된다는 점을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분자 샤페론 중의 하나인 샤페로닌’이라는 표현에서 샤페로닌 외에 다른 분자 샤페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유비퀴틴 활성화 효소는 비정상 단백질에 유비퀴틴 연결 효소가 결합되는 상황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아미노산의 결사슬에 붙어 있는 원자에 산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해당 아미노산이 친수성을 띠는지 소수성을 띠는지가 결정된다. 단백질은 친수성이 주로 바깥쪽을 향하도록 접히고 소수성이 주로 안쪽을 향하도록 접히므로,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결사슬을 이루는 원자들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 입체 구조가 다르고, 그 입체 구조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을 한다. ② 결사슬에 수소 원자와 탄소 원자만 있는 경우 아미노산은 소수성을 띤다. 산소 원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수성을 띤다. ③ 포유류의 체내 환경은 대체로 물이 많다. 그래서 물의 영향으로 인해 아미노산 사슬들이 정상 단백질이 되는 방향으로 접힌다. ⑤ 세포 스트레스가 야기되는 상황에서는 비정상 단백질을 줄이기 위한 방어 체계가 작동한다. 이는 HSF가 활성 상태가 되도록 하여 샤페로닌의 발현을 늘림으로써 이루어진다.

7. [출제의도] 지문을 토대로 한 진술을 적절하게 완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에는 비정상 단백질이 샤페로닌에 의해 처리되거나 프로테아솜에 의해 처리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그 과정을 요약 진술한 문장의 빈칸에 적절한 내용을 찾아야 한다.

[정답풀이] 샤페로닌의 내부에서 비정상 단백질은 잘못 접혀 있는 상태가 풀리고 다시 접힌다. 이때 잘못 접혀서 안쪽에 놓인 친수성 아미노산이 물의 인력에 의해 바깥쪽에 놓이려 한다. 즉 ㉠에는 극성에 의해 입체 구조 안쪽의 친수성 아미노산이 바깥쪽으로 끌어당겨진다는 진술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 ㉡에는 프로테아솜에 의해 처리되는 과정이 진술되어야 한다. 그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유비퀴틴 연결 효소의 작업이 있어야 하며, 이는 유비퀴틴 연결 효소가 비정상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한 결합이 있고 나서 유비퀴틴 표지를 부착시키는 과정, 프로테아솜이 분해하는 과정 등이 이어진다.

[오답풀이] ② 프로테아솜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 역할을 하는 것은 유비퀴틴이다. ③, ④ 샤페로닌의 내부에 단백질이 있을 때, 입체 구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끌어당겨지는 것은 소수성 아미노산이 아니라 친수성 아미노산이다. 또한 비정상 단백질에 유비퀴틴을 부착시키는 것은 유비퀴틴 활성화 효소이다. ⑤ 샤페로닌은 분자 샤페론의 일종이다. 분자 샤페론이 아미노산에 결합된 것도 아니고 바깥쪽으로 끌어당겨지는 것도 아니다.

8.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대상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변형 프라이온은 바이러스나 세균처럼 자기 증식하는 것도 아닌데도 광우병과 유사한 질환을 전

염시킨다. 이는 변형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에 인접해 있을 때에 정상 프라이온의 접힘을 풀어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로부터 유입된 변형 프라이온이 인간과 같은 다른 포유류에도 관련 질환을 전염시킬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다수의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입체 구조의 안쪽에 놓이면 안정적인 상태가 되고, 이는 정상 프라이온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③ 변형 프라이온은 프로테아솜에 의해 분해될 수도 있고, 사페로닌에 의해 다시 접힐 수도 있다. 둘 중 어느 방식으로 처리될지의 여부는 확률적으로 결정된다. ④ 변형 프라이온은 인접한 정상 프라이온의 접힘을 풀어 변형시킨다. 그리고 변형 프라이온들끼리 잘 응집하여 반점 형태의 조직을 뇌에 형성한다. 변형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들과 응집하는 것은 아니다. ⑤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지 않고 소화 기관에서 흡수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분해된 채 흡수된 후 응집하는 것도 아니다.

9.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의 질환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헌팅턴병에 대해 소개되어 있다. 이는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유전병으로, 잘못 접힐 가능성이 높은 헌팅턴 단백질 관련 아미노산 사슬을 생산하는 병이다. 이 병이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기 쉬운 이유는 돌연변이 헌팅턴 단백질이 비정상 단백질을 처리하는 인체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에 있다.

[정답풀이] 돌연변이 헌팅턴 단백질은 비활성 상태의 HSF에 유비퀴틴이 부착되도록 유도한다. 그러면 유비퀴틴이 부착된 HSF를 프로테아솜이 분해할 것이다. HSF가 체내에 많이 있어야 세포 스트레스 상황 등에서 활성화되어 돌연변이 헌팅턴 단백질을 정상으로 만드는 사페로닌을 다수 발현시킬 것인데, 이는 애초에 그런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HSF를 없애 버리는 결과이다. 유비퀴틴과 프로테아솜이 충분히 많다고 가정되어 있으므로, 프로테아솜이 처리하는 방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돌연변이 헌팅턴 단백질이 프로테아솜에 의해 분해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지문에 따르면 유비퀴틴은 단백질의 친수성 아미노산에 부착된다. 비활성 상태의 HSF에 유비퀴틴이 부착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비활성 상태의 HSF에도 유비퀴틴이 부착될 수 있는 친수성 아미노산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보통의 경우보다 더 긴 사슬로 이루어진 헌팅턴 단백질은 친수성 환경에서조차 잘못 접힐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페로닌에서 빠져나온 것들 중에는 제대로 접히는 것에 실패하여 여전히 비정상 단백질 상태인 것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헌팅턴 단백질은 물론 돌연변이 헌팅턴 단백질 역시 사페로닌의 내부에 있다가 나온 것일 수 있다. ③ 돌연변이 헌팅턴 단백질은 CK2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발현시켜 HSF들이 비활성 상태에 있도록 한 후, 비활성 상태의 HSF에 유비퀴틴이 부착되도록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HSF를 분해, 제거시킨다. HSF들이 비활성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사페로닌의 발현을 늘리지 않아서 사페로닌에 의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다. 만일 헌팅턴병에 걸린 이에게 약물을 투입하여 CK2 단백질을

의 발현을 억제하면 HSF들이 상당수 활성 상태로 있을 것이고 사페로닌이 늘어나서 돌연변이 헌팅턴 단백질을 처리할 것이다. 또한 프로테아솜에 의한 처리도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헌팅턴병에 걸려도 돌연변이 헌팅턴 단백질의 수가 늘지 않고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다. ⑤ 돌연변이 헌팅턴 단백질이 많을수록 CK2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발현되고 그 결과 HSF가 줄어들어, 발현되는 사페로닌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비정상 단백질을 처리하는 방식 중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돌연변이 헌팅턴 단백질들이 응집하여 뇌세포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10. [출제의도] 문맥상 단어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㉞의 '일으키다'는 '생리적이거나 심리적인 현상을 생겨나게 하다.'의 의미이다. 이는 '시각 장애를 일으키다'의 '일으키다'와 동일한 의미이다.

[11 ~ 14] 고전소설

➔ 연계 지문: 작자 미상, 「운영전」(수능특강 242쪽)

➔ 작자 미상, 「안생의 사랑」

11. [출제의도] 작품의 특정 부분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는 '운영'이 상황을 진술하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내비치고 있지만, [B]에서는 '김 진사'가 상황을 진술하면서 당시 자신의 심정을 내비치고 있을 뿐 다른 인물의 판단을 전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A]에서는 '한 번이라도 궁문을 나가'거나 궁 밖의 사람이 '궁녀의 이름을 알기만 해도'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대군'이 궁녀들의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상황이 언급되어 있다. [B]에서는 '운영'이 자결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과, 충격을 받아 기절하였던 '김 진사'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운영'의 죽음은 '대군'의 명령을 어기고 궁 밖의 사람인 '김 진사'와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 따라서 [A]에서 '대군'이 궁녀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상황은, 곧 [B]에서 '운영'이 죽음으로써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김 진사'가 사경을 헤매는 부정적 상황을 초래하는 여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제가 바로 운영입니다'라는 말을 통해, [A]에서는 운영이 상황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B] 바로 위의 '이 이하는 낭군께서 말씀하십시오.'라는 운영의 말과 '이에 진사가 운영의 뒤를 이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라는 서술을 참고할 때, [B]에서는 '김 진사'가 상황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A]에서는 궁 안에서 일어난 일이 진술되고 있으며, [B]에서는 '운영'이 죽고 나서 궁 밖에서 벌어진 일이 주로 진술되고 있다.

12.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여자가 궁 안에 갇히자, '안생'은 '처가 사람들과 더불어' '궁중의 종들과 문지기 졸병에게 후하게 뇌물을 주고, '밤을 틈타 담을 넘어' 몰래 '여자'와의 만남을 이어 갔다. (계집종이 양반과 혼인하여 살거나, 노비인 처가 사람들이 부유하여 재산 다툼을 벌이는 작품의 상황을 이해

하기 어렵다면 다음 사실을 참고하도록 하자. 조선 시대의 노비 중, 주인과 떨어져 살며 정해진 신통만 바치면 되는 외거 노비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일가를 이루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도 하였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자'와 그 가족들은 외거 노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대군'은 '하늘이 재주를' 남자에게만 많이 내렸을 리 없다며 궁녀들에게 학문과 시를 가르쳤고, 그 결과 '오 년도 채 안 되어 (궁녀들) 열 명 모두가 재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그 궁녀들 중 한 사람인 '운영' 스스로가 '우리의 탁월한 기상은 비록 대군에게는 미치지 못했다'고 하였으므로, 궁녀들의 시 짓는 재주가 '대군'을 능가하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 '안생'이 다른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13. [출제의도] 중심인물의 내면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안생'이 '다른 사람과 즐기려 하'느냐고 '여자'에게 짓궂은 농담을 하자 '여자'는 정색을 하며 '신 한 짝'을 찢었고, '안생'이 또다시 희롱하자 '여자'는 '흰 적삼'을 개천에 버렸다. 이는 남편인 '안생'이 장난으로라도 자신의 절개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 '여자'가 취한 행동으로, 정절을 지키겠다는 '여자'의 단호한 태도와 굳은 마음을 보여 준다. '안생'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 여겨 신발을 찢고 적삼을 버린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운영'은 '대군'이 '대체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항상 궁궐 안에서만 생활하고 다른 사람과는 전혀 대화를 나누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로 보아, '운영'은 '대군'의 보살핌을 고마워하는 감정과 그의 철저하고 엄격한 통제에 대한 반감을 함께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운영'이 '대군'에게 초사를 통해 언급한 세 가지 '죄'의 내용은 첫째로는 '대군'에 대한 훼손, 둘째로는 '대군'의 의심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것, 셋째로는 다른 궁녀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둘째와 셋째 '죄'에는 자신이 뒷사람을 기만하고 주위에 누를 끼쳤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서 '운영'은 '만약 죽음을 늦춰 주실지라도 저는 마땅히 자결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운영'이 스스로의 행동, 즉 궁녀로서의 금기를 어기고 궁 밖의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일에 대해, 그것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나)에서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라'고 한 '정승'의 명을 받고는, '시집갈 도구를 친히 준비하'는 등 순순히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이처럼 시집갈 것처럼 주위를 속이고 자결한 것으로 보아, '여자'는 자신의 정절을 지키는 방법이 죽음밖에 없으며, 주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운영'의 자결은, '대군'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못한 궁녀의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분 질서에 따른 권력으로 윤리적 가치를 강요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

의 ‘여자’의 죽음은, ‘안생’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정승’의 명령을 어기고 죽었다는 점에서, 억압적 신분 질서가 당대 사회의 윤리적 가치와 충돌해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권력자(‘정승’)가 윤리적 가치에 반하는 명령에 따르기를 종용한 것이지, 권력으로 정절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강요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오답풀이] ②(가)에서 ‘큰 죄’를 지었다며 ‘운영’이 죽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였다는 것은, ‘운영’이 저지른 죄보다 그녀에 대한 동정이나 공감이 더 컸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죄가 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③‘정승’은 주인인 자신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양반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여자’를 ‘깊은 궁’에 가두고 나중에는 ‘개가’를 강요하였다. 이는 신분 질서가 개인의 애정조차 억압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④(나)에서 ‘여자’는 ‘개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여자가 자결을 한 것은, 그것만이 ‘개가’를 피하여 ‘안생’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정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억압적 상황에 내몰린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을 지키기 위해 한 선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5~20] 사회-예술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69쪽

15. [출제의도] 두 지문의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후기 자본주의의 소비 양상을 분석 대상으로 언급하고 이에 대한 부르디외와 보드리야르의 이론적 분석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회화를 분석 대상으로 언급하고 이에 대한 그린버그와 보드리야르의 이론적 분석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가)와 (나)는 화제의 역사적 기원을 소개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가설을 평가하고 있지도 않다. ③(가)와 (나)는 화제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두 관점을 비교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는 않다. ④(가)와 (나)에는 화제를 대하는 계층별 입장 차이, 그와 관련된 전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가)에는 소비와 관련된 사회의 변화 과정이 일부 제시되어 있으나 화제에 대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나)에는 화제와 관련하여 앤디 워홀의 작품이 사례로 제시되어 있으나 화제와 관련된 사회의 변화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16.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명예나 과시를 위한 낭비적 소비는 후기 자본주의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었다. 다만 후기 자본주의에 이르러 이러한 소비가 더욱 확산된 측면이 있다.

[오답풀이] ② 소비를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는 부르디외와 보드리야르에 의해 이루어졌다. ③ 자본주의 초기만 하더라도 무엇을 소비할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④ 부르디외의 아비투스(해당 계층에 속한 이들의 행위를 이끄는 인식의 틀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계층에 속한 사람은 그 계층의 아비투스를 갖는다. ⑤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후기 자본주의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취향에

따른 자율적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들의 내재적 질서에 순응하는 소비를 한다.

17. [출제의도] 두 지문에 제시된 특정 개념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 따르면 시물라크르는 원본 없는 복사본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에 없는데도 마치 현실을 모방한 듯이 만들어진 가상적 이미지이다. 따라서 시물라크르에는 현실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과잉 의미 상태는 하나의 시물라크르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가 아니다. 시물라크르들의 반복으로 인해 과잉 의미 상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시물라크르들에 의해 점령된 세계는 ‘과잉 현실’이다. 즉 현실에 대한 정보들이 과잉 저장되어 있다는 진술은 하나의 시물라크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가)와 (나)를 함께 참조하면, 원본 없는 복사본인 시물라크르는 복제된 이미지를 다시 복제함으로써 생성됨을 알 수 있다. ②(나)에 따르면 시물라크르는 원본을 지시하는 기능을 하지 않으며 원본을 지시함으로써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제들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 내 의미를 발생시킨다. ④(나)에 따르면 전통적 재현과 달리 시물라크르는 시각적으로만 재현적 형식을 취하고 의미적으로는 원본 대상을 지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한다. ⑤(나)에 따르면, 워홀의 작품들에서 대상의 색감과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며 반복되면서 시물라크르는 차이의 생산을 반복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18. [출제의도] 독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현대 사회의 소비는 산업적으로 생산된 차이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한 차이에 의해 발생한 가치를 좇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대 사회의 소비 방식에 의해 소멸되는 것은 산업적으로 생산된 차이가 아니라 개인간의 본질적 차이들이다. 워홀의 창작 행위 역시 차이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시물라크르를 통해 조금씩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오답풀이] ① 부르디외는 현대인의 소비 습관은 개인적 측면이 아니라 사회 계층적 차원의 성향에 의존해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②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현대인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없는데도 산업적으로 생산된 작은 차이에 현혹되어 기호 가치를 소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③ 부르디외는 현대 사회에 집단의 성향을 반영한 소비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소비가 현실에 없는 가상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반면 보드리야르는 기호가 만들어 내는 이미지를 현실에 없는 것을 만들어 낸 시물라크르라고 부르며 현대인들이 가상의 이미지를 소비한다고 진단하였다. ④ 그린버그는 현실의 형상을 최대한 없애는 방식으로 전통적 회화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다. 이와 달리 보드리야르는 앤디 워홀의 작품을 거론하며 시각적으로는 대상의 재현을 용인하면서도 의미적으로는 원본 대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통적 회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지문의 작품들과 <보기>의 작품을 각 창작 의도의 측면에서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순수 추상 회화), ㉡(워홀의 「210개의 콜라병」), ㉢(저드의 미니멀리즘 작품)은 모두 현실의 대상을 지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술적 자율성을 추구한 작품이다. ㉠과 ㉡은 평면 회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면, ㉢은 회화도 조각도 아닌 3차원 기본 단위를 활용하여 현실의 환영을 피하려고 하였다. 한편 ㉠과 ㉡은 재현적 요소가 작품에서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면, ㉢은 표면적으로는 재현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의미적으로는 원본을 지시하지 않는 방식을 취했다.

[정답풀이] ㉠은 현실의 환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색, 선, 면의 회화적 요소로만 표현하고 붓질을 최소화했다. ㉢ 역시 3차원 기본 단위의 반복으로 재현적 잔재를 말소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현실의 환영을 없애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 ㉢이 현실의 환영을 없애려 한 것은 현실의 대상에 구속받지 않는 작품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풀이] ㉠㉡은 캔버스에 색, 선, 면 같은 회화적 요소를 활용해 표현했을 뿐, 그 캔버스 자체를 기본 단위로 활용하거나 이를 회화적 요소로 활용한 것은 아니다. ㉡㉢은 현실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사한 것이 아닌 동일한 것들을 연속적으로 배치했다. 저드에 따르면 완전히 동일한 것을 지루하게 반복해야 재현적 잔재가 말소된다. 반면 ㉢은 색감과 형태가 약간씩 다른 것들을 반복적으로 복제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배치했다고 볼 수 있다. ㉢㉣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물이 됨으로써 자기 지시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물이 된 것은 아니다. 참고로 ㉠이 극단으로 추구되면 캔버스 그 자체가 하나의 사물이 될 수 있다. ㉡㉢은 평면 회화로는 현실의 대상을 부정하거나 그로부터 이탈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은 평면 회화에 해당하므로 ㉣은 평면 회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실의 구속에서 벗어나려 했다고 봐야 한다.

20.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특정 구절의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드리야르는 시물라크르의 반복이 의미의 비결정성을 낳는다고 지적하였다. 복제가 무한히 이루어지면 차이의 생산이 극에 달하여 과잉 의미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태는 의미의 무한 생산 상태여서 회화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의미의 비결정 상태를, ㉠에서는 ‘무의미 상태’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은 시물라크르 회화에서 의미 생산 작용은 일어나지만 확정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 시물라크르 회화에서 의미가 복제와 복제 사이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것은 아니다. ㉢ 시물라크르 회화가 원본이 지닌 우월적 지위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것은 아니다. ㉣ 시물라크르 회화는 대중 매체를 통해 과잉 공급된 정보가 대중을 침묵하게 하는 현상과 닮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과잉 의미 상태인 시물라크르 회화가 대중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의미를 해석하게 한다는 것은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다. ㉤ 시물라크르 회화는 의미 차이를 생산할 수

있으며, 대중 매체를 통해 과잉 공급된 정보가 대중을 침묵하게 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도 반영한다.

[21 ~ 25] 고전시가

→ 이정환, 「비가」 | 이진유, 「속사미인곡」

21.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1수>는 ‘꿈’에게 건네는 말을 통해, 청나라에 잡혀가 있는 세자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제10수>는 자신에게 건네는 말을 통해, 나라 걱정을 하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이 없다는 쓸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제10수>의 ‘이것’, ‘어린 것’은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답풀이] ① <제1수>는 화자가 밤중에 잠에서 깨어 ‘꿈’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상황이 드러나 있을 뿐, 시간의 흐름이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제4수>에서는 ‘이역’이나 ‘치술령’ 같은 공간이 언급되지만, 화자가 그 공간들을 생각하는 것일 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제1수>에서는 ‘꿈’이 의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제9수>에서 의인화된 대상은 찾아볼 수 없다. <제9수>의 ‘검불’은 의인화된 것이 아니라, 화자가 자신을 빗댄 대상일 뿐이다. ⑤ <제9수>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은 ‘서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 밧게 썰러’졌다는 말은 자신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 ‘오색구름 기픈 곳’이라는 시구는 자신이 ‘서울’이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일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낸다. 화자가 초월적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 <제10수>에는 자연 현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22. [출제의도] 시구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화자가 스스로를 ‘조그만 이 한 몸’이라 표현한 것에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한탄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의 ‘그윽한 이 내 몸’이라는 표현에는, 남들이 자신을 ‘음란하다’고 비방하지만 자신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올바르다는 자긍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④ (가)의 ‘검불’은 ‘바람’에 불려 이리저리 떠도는 존재로, 무력한 화자 자신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사물이다. (나)의 ‘추풍선’은 여름이 지나자 쓸모없다고 여겨져 버림받은 사물로서, 이것 역시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사물이다. ⑤ (가)의 ‘잡말’은 화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화자의 말(<제1수>에서 <제9수>에 이르기까지 한 말)에 대한 화자 자신의 평가이다. 화자는 자신의 말을 어리석은 이의 ‘잡말’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시름’을 알아줄 이 없다는 한탄을 드러내는 것이다.

23. [출제의도] 외부 정보를 참고하여 구절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중산 방서’의 고사를 활용한 것은, 그 고사처럼 ‘우리 님’이 세상 누구와 비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믿어 주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비록 유배를 보내기는 했지만, 그것은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함정’에서 구하기 위함이며, 자신을 배려하여 ‘선지’에 유배했다는 것이다.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임’에게 그 의심을 거두어 달라는 당부

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 자신의 슬픈 노래, 즉 이 작품을 ‘칠실의 비가’라고 표현한 것은, 노나라 칠실의 처녀가 나라를 걱정하다가 주체님은 짓이라는 편잔을 들은 것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자신이 슬퍼하고 한탄해 봐야 알아줄 이가 없다는 쓸쓸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시호 성의’와 ‘증모 투저’는 사실과 다른 말도 여럿이 거듭 말하면 사실이라 믿기 쉽다는 의미를 가진 고사이다. 이 고사들을 활용한 것은, ‘참언이 망극’여 임이 자신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화자는 이 고사들로 그러한 상황을 나타냄으로써, 자신을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어 준 임에 대한 고마움을 부각하고 있다.

24. [출제의도] 작품의 특정 부분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천지간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에서는 공간의 광활한 이미지가 환기되는데, 이를 통해 이 넓은 세상에 홀로 있다는 고독감이 부각된다.

[오답풀이] ③ [A]에서 물음의 방식은 두 군데에서 사용되었다. 첫째인 ‘우리 님 아니시면 놀을 다시 의지홀고’에 나타난 물음의 방식은 설의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의지할 곳이 임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임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둘째인 ‘내 신세 고향홀 줄 님이 모르실가’에도 물음의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이 시구를 설의적 표현으로 본다면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임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임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2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일월 그튼 우리 님이 거의 아니 살피실가’는, 자신의 행동이 ‘님 위한 정성’이었음을, 해와 달처럼 밝은 지혜를 가진 임이니 당연히 알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드러나 있다. 살피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나타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⑤ ‘상자에 두었은들 놀 위하야 단장홀고’는 연꽃으로 치마를 만들었으나 임이 곁에 없기에 단장할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내비치고 있다.

[26 ~ 30] 인문

26.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프레게에 따르면 직설법적 조건문은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고 그 밖의 다른 경우엔 참이다. 따라서 전건과 후건이 모두 거짓인 경우에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참이다.

[오답풀이] ① 대부분의 논리학 교과서들은 질료적 함언 해석을 인정한다. ② 조건 논리에 따르면 많은 전통적인 추론 규칙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 ④ 애덤스의 가정 이론은 질료적 함언 해석에 대한 반례들을 타당한 반례로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질료적 함언 해석을 거부한다. ⑤ 애덤스의 가정 이론에 따르면 직설법적 조건문은 그 문장이 참이 될 객관적 진리 조건을 표현한 것

이 아니라 화자가 기존 지식과 전건에 기초하여 후건을 상당한 정도로 믿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27. [출제의도] 특정 해석에 따라 지문의 특정 문장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S2는 A가 참이고 B가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문장이다. 따라서 S2는 A가 거짓이고 B가 참일 때 참이다.

[오답풀이] ① S1은 전건 A가 참이고 후건 B가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고 다른 경우들엔 모두 참이므로, S1은 전건과 후건의 참, 거짓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는 셈이다. ② S1은 직설법적 조건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가정에 기초한 믿음을 표현한 문장으로 간주된다. ④ 질료적 함언 해석을 주장하는 논리학자들은 S2로부터 S1이 직접적으로 추론된다는 사실을 질료적 함언 해석의 근거로 삼는다. ⑤ 질료적 함언 해석에 따르면 S2로부터 S1이 직접적으로 추론된다는 사실은 S1과 S2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28.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진술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질료적 함언 해석에 따른 결론인 ㉠은 ‘S3은 주장하겠지만 S4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우리의 직관과 충돌한다.

[오답풀이] ① ㉠은 전건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 두 조건문 모두를 주장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② 애덤스의 가정 이론에 따르면, S3은 믿음의 정도가 커서 주장할 만하지만, S4는 믿음의 정도가 작아 주장할 만하지 않다. 따라서 ㉠이 도출되지 않는다. ④ ㉠은 S3과 S4의 공통 전건에 대하여 내가 상당히 낮은 신뢰를 갖기 때문에 도출되는 결론이다. ⑤ ㉠은 S3과 S4 모두에 대하여 내가 상당한 신뢰를 갖는다는 주장인데, 이는 ‘S3에 대해서만 내가 상당한 신뢰를 갖는다.’는 우리의 직관과 충돌하는 결론이다.

29.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가정 이론에 따를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전통적인 추론 규칙의 사례로 ‘대우 법칙’이 제시되고 있다. 대우 법칙은 R1로부터 R2로의 추론을 허용한다. 하지만 가정 이론에 따르면 결론 R2에 대한 믿음의 정도인 0.5가 전체 R1에 대한 믿음의 정도인 0.8보다 작으므로 이러한 추론은 비합리적인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정답풀이] 가정 이론에 따르면 R2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P(X가 거짓임 | Y가 거짓임)으로서 0.5이고, R1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P(Y | X)로서 0.8이다. 따라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작다. 한편 이와 같이 결론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전체에 대한 믿음의 정도보다 더 작기 때문에, R1로부터 R2로의 추론을 허용하는 ‘대우 법칙’은 가정 이론에 따를 때 합리적이지 않다.

[오답풀이] ① 질료적 함언 해석에 따르면 “Y가 거짓이라면 X가 거짓이다.”라는 R2는 “Y가 참이거나 X가 거짓이다.”라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② 가정 이론에 따르면 R1이 참일 확률은 P(Y | X)로서 0.8이다. 한편 질료적 함언 해석에 따르면 R1은 “X가 거짓이거나 Y가 참이다.”라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R1이 참일 확률은 P(X가 거짓이거나 Y가 참임)으로서 0.9이다. ③

가정 이론에 따르면 R2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조건부 확률 $P(X가 거짓임 | Y가 거짓임)$ 이다. 이것은 Y도 거짓이고 X도 거짓일 확률을 Y가 거짓일 확률로 나눈 값과 같다. ④ 질료적 함언 해석에 따르면 R1은 “X가 거짓이거나 Y가 참이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R2는 “Y가 참이거나 X가 거짓이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X가 거짓이거나 Y가 참이다.”와 “Y가 참이거나 X가 거짓이다.”는 “이거나” 앞뒤에 오는 부분이 바뀌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R1로부터 동일한 의미를 갖는 R2로의 추론을 허용하는 ‘대우 법칙’은 질료적 함언 해석에 따를 때 합리적이다.

30. [출제의도] 지문의 구절과 문맥상 바꿔 쓸 수 있는 구절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만약 A가 참이면 B가 참이다.”라는 S1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간주되는 확률은, A가 참인 경우에 B가 참일 조건부 확률 $P(B|A)$ 이다.

[오답풀이] ② A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는 정도가, S1에 대한 믿음의 정도일 리 없다. ③ S1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A가 참인 경우에 B가 참일 조건부 확률이므로, A도 참이고 B도 참일 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④, ⑤ S1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S1이 직관에 부합하는 정도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S1이 거짓일 확률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31 ~ 34] 현대소설

→ 오정희, 「야회」

31. [출제의도] 지문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야기 바깥의 서술자가 명혜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그녀의 생각이나 그녀가 관찰한 다른 사람들의 행위와 발화를 진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지문 내에서 사건은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병렬적 구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32. [출제의도] 발화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큰아들이) 집에 온 걸 보면 많이 나아진 모양이죠?’라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을 말한 사람은 먼저 ‘아들이 집에 있으면 집 안에 전혀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는데 이상한 일’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는, 그에 이어 ㉡을 말하고 있다. 이는 ‘아들이 집에 있으면 집 안에 전혀 사람을 들이지 않는’ 까닭에 해당하는 것이지, 앞서 말한 대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③ ㉡의 발화자는, 앞서 사람이 김 원장의 큰아들이 거부증에 걸려 영양 주사로 살고 있다고 말한 것을 이어받아, 그것은 어렵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김 원장이 자기 병원 ‘간호원’과 재혼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김 원장의 큰아들에 대해 이어져 오던 화제를 살짝 바꾸어 김 원장 부인의 과거를 환기하고 있는 셈이다. ④ ㉠에서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을 빌려, 남들이 다 아는 사실을 ‘모르리라고 믿고 있는’ 김 원장 내외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다.

33.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누군가가 김 원장 큰아들이 앓고 있는 병의 증상에 대해 설명하자, 치과 의사 부인은 그것을 이어받아

‘이 댁 안주인이 주사 놓는 데’ 귀신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 원장 큰아들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사람은 치과 의사 부인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첫 문단에서 명혜는 집의 전면과는 다른 집의 뒷벽, 그리고 활기를 띠고 있는 아래층과는 달리 이 층의 창들은 오직 구석 창에만 불빛이 보이는 점 등을 관찰하고 있다. 김 원장 집의 전면과 후면, 일 층과 이 층에서 대조적인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다. ③ 명혜가 이 층에 대해 이야기하자, 검사 부인이 제일 먼저 정말이냐고 ‘가려움증을 참지 못하듯 입을 열’고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명혜는 김 원장의 아들이 와 있다는 게 헛말이 아니라는 검사 부인의 말을 듣고는 ‘외국에서 돌아왔나요?’라고 묻고 있다. 그러므로 김 원장의 큰아들이 외국에 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장면에서 명혜가 타인의 삶에 대해 특별하게 통찰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④ 화려한 파티와 무관하게 홀로 켜진 이 층 방의 불빛은 외롭거나 소외된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명혜가 이런 불빛을 정답게 느낀 것은 그런 외롭고 소외된 존재와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명혜는 그 방에서 신음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는 거짓말을 하여 주변 사람들의 즉각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는 만족감을 느낀다. 곧 자신이 동질감을 느꼈던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거짓말을 해서라도,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흥미를 갖기도 하는 것이다. 명혜가 이처럼 양면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보기>를 참고하면 어느 한 면만으로 구성되지 않는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선택과목 - 회법과 작문 •

[35 ~ 37] 회법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44쪽

35. [출제의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설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폐휴대폰에서 얻을 수 있는 금속 자원의 종류나 폐휴대폰에서의 금속 자원 추출의 효율성에 대한 예시일 뿐, 어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있지 않다.

36. [출제의도]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된 포스터의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설자는 폐휴대폰에서 금속 자원을 추출하는 것이 광산에서 금속 자원을 채굴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 설명하고 있다. 원석 1톤에서 얻을 수 있는 금의 양보다 폐휴대폰 1톤에서 얻을 수 있는 금의 양이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휴대폰에서 금속 자원을 추출하는 것이 광산에서의 채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효율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7. [출제의도] 연설의 특정 부분의 발화 의도에 따라 친구들을 설득할 말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설자는 ㉠에 이어 바로 ‘폐휴대폰이 금속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휴대폰 재활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에 주목하여 설득할 말로는 ④가 적절하다.

[38 ~ 41] 화법 - 작문

38. [출제의도] 인터뷰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80쪽

(가)에서 ‘연구원’이 답변 도중 ‘진행자’의 배경지식을 점검하며 중심 화제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가)에서 ‘연구원’이 ‘음, 진행자께서는 평소 ~ 전기 플러그를 뽑아 두셨나요?’라는 질문을 하지만 이는 ‘연구원’의 배경지식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묻는 질문이다.

[오답풀이] ① ‘진행자’는 ‘에너지 절약 마크가 ~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라고 하여 ‘연구원’의 말을 재진술하고, ‘이를 참고하면 가정 ~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② ‘진행자’는 ‘또 다른 방법들도 소개해 주시겠어요?’라고 하여 ‘연구원’의 답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③ ‘진행자’는 ‘네, 전기 도둑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라고 하여 ‘연구원’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연구원’은 ‘진행자’가 ‘듣고 보니 가정에서 ~ 꽤나 많을 것 같은데요?’라고 추측한 내용에 대해 ‘네, 맞아요. 가정에서 ~’라고 하며 설명을 이어 가고 있다.

39. [출제의도] 인터뷰 참여자의 자료 활용 계획이 강연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구원’은 [질문 1]에 대한 내용 전달 과정에서 전력 측정기를 이용해 컴퓨터의 소비 전력과 대기 전력을 측정하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대기 전력을 측정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40. [출제의도] 글쓰기 과정에서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 글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80쪽

(가)에서 ‘연구원’이 대기 전력 줄이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플러그를 뽑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서 다른 방법을 병행하기보다 플러그 뽑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41. [출제의도] 글의 마지막 문단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히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93쪽

⑤에서 ‘대기 전력 줄이기를 실천해 에너지 절약에 힘을 보탤’다는 데에 보람을 느꼈다’라고 하여 대기 전력 줄이기를 실천한 후의 느낌을 밝혔고, ‘다른 학생들도 대기 전력이 낭비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줄이기 위해 실천에 나서기를 바란다.’라고 하여 친구들에게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2 ~ 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49쪽

42. [출제의도] 글에 반영된 글쓰기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셋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접이식 대기 의자를 설치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되고, 시의 보행자 사고도 감소

하게 될 것이라는, 지역 사회가 얻게 될 긍정적 효과가 언급되고 있다. 이는 건의 내용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을 위한 것임을, 즉 건의 내용의 공익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43. [출제의도]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건의문을 적절하게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과 ㉡를 활용하여 접이식 대기 의자를 설치하면 고령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막아 증가 추세에 있는 고령 보행 사상자의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전체 보행 사상자의 수는 증가 추세에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의 보고서 자료를 보면 고령 보행 사상자의 수는 부상자와 사망자 모두 증가 또는 감소하였지, 꾸준히 증가하지는 않았다. 꾸준히 증가한 것은 전체 보행 사상자 중 고령 보행 사상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다. ②㉡의 통계 자료를 보면 고령 보행 사상자가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고령 보행 사상자의 98%가 시장과 병원, 역, 터미널 주변 등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작문 후 점검을 통해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의 '요구되어지는'이라는 불필요한 피동 표현은 '요구되는'으로 수정하였고, '교통안전 캠페인과 ~ 시급합니다.'라는 문장은 (나)의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이므로 삭제하였다.

45. [출제의도]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두 글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글쓴이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찾을 수 없다. (나)에는 접이식 대기 의자의 도입을 건의하는 글쓴이의 주장과 그 이유로 어르신들이 선 채로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길을 건너는 바람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자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61쪽

'ㅇ'은 '경위 > 거위(거위)'에서와 같이 'ㅇ' 자체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거나 '달애다 > 달래다'에서와 같이 'ㅇ'이 'ㄹ'로 바뀌는 변화를 겪었다.

[오답풀이] ① '구'의 'ㄱ'은 '가'의 'ㄱ'과 달리 유성음 사이에 있으므로 유성음으로 실현된다. ② 현대 국어에서 비음 'ㄹ', 'ㄴ', 'ㅇ'과 유음 'ㄹ'은 유성음으로 실현된다. ③ '방'은 후행 모음이 'ㅏ' 또는 'ㅑ'인 경우에는 반모음 'ㅇ/ㅍ[w]'로, 후행 모음이 'ㅓ' 또는 'ㅕ'인 경우에는 후행 모음과 합쳐져 'ㅇ/ㅍ'로 바뀌었다. ④ '방, △, ㅇ' 중 가장 먼저 사라진 소리는 '방'이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의 불규칙 활용 용언 형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61쪽

'눅다'와 '뚱다'의 어간 '눅-'과 '뚱-'은 모음 어미와 결합하면서 'ㅏ'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낫다'와 '젓다'의 어간 '낫-'과 '젓-'은 모음 어미와 결합하면서 'ㅓ'가 탈락하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이를 통해 '눅-'과 '뚱-', '낫-'과 '젓-'이 중세 국어에서 어간에 유성 마찰음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7. [출제의도]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72쪽

㉠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없다. '학생이 아니다'는 각각 보어와 서술어로 기능한다.

[오답풀이] ②㉠에서는 '내가 오늘 만남'이, ㉡에서는 '밤을 푹푹 샌'이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③㉡의 명사절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에서는 '아이가 이 동네에 살다'가 안기면서 주어가 생략되었다. ④㉢에서는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용언을 수식하고 ㉣에서는 부사절 '신이 닳도록'이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⑤㉣의 '밤을 푹푹 샌'에는 부사어 '푹푹'이, ㉣의 '방금 도착한'에는 부사어 '방금'이 있다.

38. [출제의도] 사이시옷이 포함된 단어의 표준 발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10쪽

'꿇구멍'은 [귀꾸멍]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권꾸멍]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룻배'는 [나루뻘/나루뻘]로 발음한다. ③ '사삿일'은 [사산닐]로 발음한다. ④ '아랫니'는 [아래니]로 발음한다. ⑤ '텃마당'은 [텃마당]으로 발음한다.

39. [출제의도] 인용 표현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69쪽

주어진 간접 인용절은 과거의 발화를 현재 시점에서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인용절 속의 '내일'은 간접 인용절에서는 '오늘'이 되어야 한다. '어제'라는 과거 시점에서의 '내일'은 현재 시점에서의 '오늘'이기 때문이다. 한편 직접 인용절의 '그'는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쓰인 것이므로, 간접 인용절에서는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이'가 쓰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손녀의 발화를 그대로 옮긴 직접 인용절과 달리, '조부모' 입장에서 '손녀'를 가리켜야 하므로 일인칭 대명사 '저' 대신 삼인칭 대명사 '자기'가 쓰여야 한다. '주다'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것을 주도록 요구하다'를 뜻하는 '달다'로 바뀌 쓰는 것이 적절하다.

[40 ~ 42] 매체 1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87쪽

40.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매체별 특성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청각 정보만 전달할 수 있는 (가)와 달리 (나)는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모두 전달할 수 있어, 수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과 사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라는 정해진 시각에 제철 음식 소개라는 약속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③ '주파수를 고정해' 달라

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가)는 전파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④ (가)는 특정 시각에 정해진 정보를 송출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해당 매체인 라디오 방송에서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다.

41. [출제의도] 전통적인 매체와 뉴미디어에서 정보의 생산과 수용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칭취자 게시판'은 해당 방송의 인터넷 게시판이다. 이는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칭취자 게시판'에 조리법을 게시하는 것을 전통적인 매체들이 서로 통합되는 모습으로 볼 수 없다.

42. [출제의도] 초상권과 저작권에 대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을 할머니라고 식별할 수 있는 사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할머니의 초상권을 존중하기 위해 할머니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 게시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43 ~ 45] 매체 2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화법과 작문 117쪽

43. [출제의도] 생산된 매체 자료에 대해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학교 친구들 사이에 전달되는 것이지만, '역사 동아리 ~ 부장 김서희입니다.', "'한길'에서 주최하는 ~ 대한 요청 사항입니다.', '전자 안내장 제작에 ~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여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 우편이 학교 친구들에게 전달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격식을 갖춘 표현을 피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문화유산 답사 전자 안내장의 제작을 의뢰한다는 전자 우편 발송의 목적이 전자 우편의 제목에 드러나고 있다. ③ 전자 우편의 본문 내용 중 '전자 안내장 초안은 ~ 모두 담아 주세요.'라고 한 부분에 글자의 크기와 굵기에 변화를 주어 해당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④ '받는 사람'에 3명을 포함하여 동일한 내용의 전자 우편이 3명에게 동시에 발송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전자 우편 상단에 '일반 첨부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한길' 문화유산 답사 장소 지도와 사진이 압축 파일로 첨부되어 있다.

44. [출제의도] 초안에 반영된 매체 자료의 제작 계획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매체 수용자가 답사 장소에 대해 보다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블로그의 하이퍼링크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나)의 4페이지에 들어 있는 링크는 답사 신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링크이다.

45. [출제의도]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미나'는 참가비와 준비물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답사 신청하기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해 주자고 하였다. 따라서 ㉢의 내용은 '답사 신청하기'의 아랫부분인 4페이지 끝부분에 위치해야 적절하다.